

중국동포(Chinese-Korean) 집단적 거주지에 나타난 지역사회에 대한 중국동포의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김 영 로**

(서울시립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인근에 집단적으로 거주 및 활동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을 심층 면담하는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의 이주초기와 현재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변화 및 현실문제를 극복하려는 대응방법을 고찰하였다. 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갈등, 현안의 극복 노력, 동포사회 내부변화와 지향방향 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사회로의 통합에 핵심변수가 된다. 이들은 이미 방대한 거주지를 형성했고 소수자집단화 되었으며 인정투쟁을 하는 동시에 권력의 열세를 극복하고자 정치권력을 쟁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은 외국인 유입으로 초래되는 사회파편화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것이어야 하고 다민족·다문화 현상에 대한 우리의 적응과 이들을 주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상호계몽적인 질서를 구축, 전파하기 위한 방안이어야 한다.

주제어 : 중국동포, 소수자, 인정투쟁, 권력의 열세, 사회파편화, 상호계몽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인간은 새로운 환경과 문명에 충동을 하면서 갈등과 적응을 반복하고 서로 흡수, 동화되면서 새로운 개체와 문화를 만들어 간다. 국가 간의 이동도 마찬가지이다. 엄한진(2006)은 한국을 비롯해 최근 세계적으로 이민논의가 다시 중요해진 것은 신자유주의적 국제 분업의 결과로 나타난 '세계화 이민'

* 이 논문은 중국동포가 집단적으로 거주 및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배경과 근거를 분석하고 있다. 이는 종교, 정치, 경제적 등의 계기적 요인에 기인했던 고전적 이민과는 구분되는 이민이며, 다민족·다인종화라는 현상은 같지만 추동하는 힘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 다민족·다인종 국가에서 이런 현상에 대응하는 정책이 최근들어 급변하고 있다(김혜순, 2007:17).

199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여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장기체류자(등록 외국인)가 70%를 기록해 단기체류자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불법체류를 포함, 결혼이민자의 정착 등이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 기업종사자, 외국인 유학생들도 그 구성요소로서 포함되고 있다. 이런 장기체류 및 정주경향은 한국 국민과 문화적 접촉을 증가시키며 사회 구성원의 국민의식, 생활양식,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서 한국은 비야호로 본격적인 다민족·다문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최영민·이기영·최현미·김정진, 2009). 그러나 현재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방향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지향을 재구성하기 보다는 우리사회의 기존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주민의 적응내지 동화를 촉진시키는데 주력하는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김이선, 2007:112-114). 또한 한국은 다문화 사회에 따른 다문화 정책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나 역할 분담 없이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공적인 담론과 사회적 합의가 결여되어 파편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유용식·손호중, 2009:448-449).

국내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2010년 12월 현재 1,251,649명¹⁾으로 125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렇게 혼돈스런 다민족·다문화 시대 속에 심각하게 발견되는 것이 우리와 다른 정체성의 집단화 현상이며 이러한 현상은 자전력을 갖게 되어 지배집단²⁾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사회의 파편화³⁾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서울 서남부에 중심축을 둔 중국동포의 거주지는 한국 국적을 소지한 동포와 중국인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을 포함한 장단기체류자로 구성된다.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동작 일대에 10만 명⁴⁾이상이 집단적으로 상주하고 있고 동포타운으로 변모한 대림동 인근으로 유동하며 생활을 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개입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1992년 한중수교 후 이주초기에 느꼈던 동포차별에 의한 비애감과 ‘중국에서 상상했던 조국’의 상실감이라는 이들의 인식(김용필, 2009)이 집단화가 된 현재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첫째, 집단화 된 이들 중국동포의 생활과 인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둘째, 한국사회라는 지배집단에 대한 이들의 대응기제와 동포집단내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파악함으로써, 셋째,

- 1) 법무부 보도자료(2011.01) “2011년도 외국인 정책시행계획”중 참고3 체류외국인 현황
- 2) 어떤 사회에 소수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월한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강한 특권을 갖는 지배집단(dominant group)이 대칭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뜻함(설동훈, 2009:56)
- 3) “다민족 사회가 직면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위협요소는 사회의 파편화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회적 통합보다는 갈등이 양산될 것이며 특히 집단별로 자신의 정체성에 근거한 ‘차이의 정치학’에 몰두하게 되면 사회는 점차 파편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되었다.”(한건수, 2010)
- 4)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동작구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중 국적 미취득자가 101,502명이며(법무부 통계자료, 2010.12), 영등포구에만 국적 소지자가 4,976명임(영등포구청, 2010.05)

향후 확장되거나 새롭게 추가 발생하는 집단적 거주군에 우리사회가 대응하는 방안의 모색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다문화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에, 다른 정체성 유입으로 인해 집단화된 사례에 대한 즉, 이질적 집단이 한국사회와 이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집단 자체를 위하여 진화하는 내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일천하다고 판단된다.

외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주자들이 형성하는 커뮤니티의 형성 배경 및 변이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이민자들은 조국의 향수에 젖어 그들만의 교감을 나누는 모임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주류사회에 동화 또는 적응하면서 응집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Cwerner, 2001) 집단이 클수록 커뮤니티가 강하고 빠르게 형성된다고 한다(White, Kim and Glick, 2005). 그런가 하면 이주자의 경제적 여건이 주거형태를 결정짓는다고 분석을 하고(Fong and Wilkes, 2000) 로간·알바·장(Logan, Alba and Zhang, 2002)은 경제·사회적 이유로 소수민족 저소득 지역공간을 형성하게 한다고 하고, 이에 대해 경제·사회적으로 안정이 되면 상류사회를 향하여 이동을 하므로 민족 중심의 거주 공간은 소수민족의 임시적인 주거형태라는 지적도 있다(Myles and Hou, 2003). 또 다른 맥락은 이민자들의 문화보호 및 발전을 위한 정책이나 문화적 특성에 의하여 거주가 결정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Wood and Gilbert, 2005; Good, 2005).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다문화라는 개념보다는 정치적·법적 차원에서 외국인을 계층화하여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Tarumoto, 2003; Lie, 2004). 반면 국내의 경우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9)이 조사 발표한 '서울시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건립방안'에서 서울시내 외국인들의 분포현황과 이들의 거주실태가 분석되었다. 한편 세계화 시대의 활발한 인적교류 및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인한 한국어 사용능력이라든가 문화의 차이 등을 연구한 '다문화가족 지역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양옥경, 2007) 등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의 지역적 분포도 및 출신국 등을 분석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중국동포이며 지역적으로는 영등포구, 구로구 등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김은미, 2007:117-121; 재정리). 이주자의 집단화된 현상에 대해서는 소수의 연구가 있다. 서울에는 9개소의 외국인 마을이 있고 집단적 거주지로서의 마을은 구로구(중국동포), 서대문구(중국인), 서초구(프랑스인), 용산구(일본인)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김은미·김지현, 2006)⁵⁾. 한성미(2010)는 소수자집단으로서 중국동포의 장소성 형성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분석을 하였으며, 사)국경없는마을(2007)은 이주민공동체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10개국 이주민공동체의 친밀도, 내부적 갈등 등을 이들 국가 간에 비교하여 분석했고, 이진영·박우(2009)는 중국동포만의 노동자집단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중국의 조선족 사회에서 국경을 넘은 가족유대가 이동을 통해 한국에서 재결합하게 되는 개

5) 이슬람 마을, 몽골 타워, 중화 거리, 클럽 이탈리아, 필리핀 일요장터와 같은 마을은 특정시간 동안 생겼다 사라지는 문화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마을임.(김은미·김지현, 2006)

별적이고 독특한 집단의 형성을 말하고 있으며, 이진영(2010)은 중국동포의 집단적 거주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최근에 영등포구에서의 거주가 두드러짐과 새로운 집거지로 부상함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⁶⁾ 이들의 활동무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이들이 독특한 집단으로서 부상하고 있음에도 관심 외의 영역으로 치부되어 이들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집단화로 인하여 동포사회가 표출하는 변이에 대한 연구도 매우 부족하지만, 인종과 이주민수에 관계없이 우리사회에 중요한 것은 국내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외국인이라고 통칭되기 어려운 이해관계와 자리매김이 다양한 사회집단으로 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김혜순, 2006:3).

따라서 이러한 집단적 거주지는 계속해서 출현 및 확산될 것이 확실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다민족적 통합정책수립에 기여하는 바가 지대하다할 것이다.

3. 연구방법과 과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인근에 집단적으로 거주 및 활동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을 심층 면담하는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변화 및 현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법을 고찰하려고 한다. 중국동포들이 처해있는 현실과 갈등, 현안 극복을 위한 노력, 동포사회 내부의 변화, 한국사회 내에서의 지향방향 등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을 우리사회의 한 부분으로 통합하는데 있어 핵심변수가 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인 '중국동포 집단적 거주지에 나타난 지역사회에 대한 이들의 인식변화를 살펴보고 이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의 질문들을 던지고 그에 대응하는 이들의 삶의 지향방향이 심층면담을 통하여 관찰될 것이다.

- 중국동포는 대림동 인근에 왜 집단적으로 정착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지역사회의 반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기존의 지역사회 내에서 동포사회가 집단화를 보이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 기존의 지역사회 내에서 집단화된 동포사회가 느끼는 인식의 변화는 무엇이며 이에 대처하는 생존논리는 무엇인가?

6) 서울시가 2009년 9월에 개소한 영등포구 다문화빌리지센터는 중국동포들이 대림역을 중심으로 정착하여 생활하므로 그 생활중심이 대림동 지역이 되어 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2) 현상학적 심층면담

질적연구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태도 및 인식을 형성하는 복잡한 현실을 민감하게 포착함으로써 그 현실을 구성하는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적 특성과 그것의 실제적 의미들을 도출하고 분석하는데 탁월한 접근이다(Marshall and Rossman, 1989). 특히 질적연구의 대표적 연구방법인 현상학은 연구대상의 인식과 경험들의 본질적 측면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현상에 대한 기술전략으로 특정의 연구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지 않는다(Colaizzi, 1978). 타인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은 타인의 행동의 동기와 의도를 파악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므로(Holstein and Gubrium, 1994) 심층면담은 현상학적 연구의 대표적 자료수집방법이다(정혜숙, 2006:242에서 재인용). 현상학은 본질과 구분되는 현상에 관한 학문으로 본질을 직관에 의해 파악·기술하는데 중점을 두고(동서문화, 1999) 바로 나타나지 않은 은폐되어 있는 것을 지각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이를 위해 반성적 고찰을 통해 현상의 이해를 강조한다(강학순 역, 1994). 그리고 사람들의 개별적인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하며, 인간은 '설명되어야 하는 존재'이기보다는 '이해되어야 하는 존재'(김미혜·이현주·서미경, 2008)로서, 참여자의 언어를 통해 드러난 내용에 공통된 구조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연구자의 직관으로 환원시켜 본질의 구조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유정숙·김가득, 2010:252에서 재인용).

중국동포들은 뿌리를 찾든 돈을 벌기 원하는 생활해오던 중국을 떠나 다른 생활환경과 이념체제 속으로 들어와서 다양한 차별과 멸시를 겪게 된다. 이들이 집단적 생활터전에서 새롭게 겪고 있는 삶의 현장을 이해하고자 실시한 본 연구는 나름대로 구획되어진 공간 속에서 거주 및 활동하는 동포사회의 이야기를 통해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대답을 수집했다. 개별 심층면담 이후 이들이 주최하는 친목모임과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참여자의 생각을 점검해보고 이들의 단체행사에 참석하여 이들이 발표하거나 배포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면담내용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보완, 제고시켰고 판단중지(괄호치기)를 위하여 연구자의 상태에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편견을 배제하면서 본질 자체를 보려는 노력을 하였다(최옥채, 2008:45).

3) 자료수집 및 분석

참여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림동 인근의 자생조직인 동포단체⁷⁾ 회원과 '영등포구 다문화빌리지센터(이하 센터)' 교육생을 대상으로 기준표집방법과 눈덩이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동포사회가 집단화되기까지의 경험이 충분한 이주 5년차 이상의 중국동포라는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준표집방법을 사용한 것이고 이주기간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려는 사례를 센터로부터 소개받았다는 점에서 눈덩이 표집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심층면담은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에 60세 이상의 참여자

7) 문민(2010)의 조사에 따르면 대림동 인근에 9개 단체가 활동하는데 이중에 가장 활성화 단체는 '귀한동포연합총회'와 '중국동포한마음협회'이며 이 둘은 2006년에 결성됨.

는 연구자의 사무실과 나머지는 그들의 활동구역인 대림동과 센터에서 실시하였으며 이들과의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개인별 약 3시간 정도였다. 이들의 인구학적 및 개별적 특성을 <도표1>에 요약하였으며 참여자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남편으로 동포사회 내부에서의 한국인 관점을 보고자 선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1985)의 4가지 평가기준인 사실적 가치(true value), 중립성(neutrality), 일관성(consistency), 적용성(applicability)에 대한(김미옥, 2008:104에서 재인용) 자기점검을 통하여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의 전 과정에서 노력하였다.

참여자의 진술내용을 연구자가 PC에 입력하는 형식을 취했으며 이들의 진술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한 코딩작업이 시작되었고 중요한 개념으로 범주화 시켰다. 다른 사례가 첨가될 때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코딩과정을 거쳤고 반복적으로 범주화 체계를 거듭하여 마지막 사례까지 적용을 하였다. 이렇게 중심의미를 찾아 주제를 정하고 모아서 범주를 설정하여 총 99개의 코드로부터 9개의 하위주제와 3개의 영역을 도출하였다.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개별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참여자의 인구학적 및 개별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직업 (국적)	신분 (기간)	개별적인 특성
A	남	53	단체운영 (한국적)	귀화동포 (12년차)	대졸, 2000년 이주, 구로동에 거주하며 대림동에서 주로 활동, 길림성 출신
B	여	60	공공근로 (한국적)	결혼이민 (20년차)	전문학교졸, 1991년 이주, 남편과 함께 보따리 장사를 하다가 현재는 공공근로 취업 상태, 대림1동 거주 및 활동, 흑룡강성 출신,
C	남	65	용역회사 직원 (한국적)	귀화동포 (7년차)	대졸, 2004년 이주, 중국서 교감으로 정년퇴임 결혼이민자인 딸을 따라 국적 회복, 구로동에 거주, 흑룡강성 출신
D	남	62	신문사 프리랜서 (중국적)	영주권자 (15년차)	전문학교졸, 1996년 이주, 동포단체에서 활동, 면목동에서 거주, 대림동에서 주로 활동, 딸을 따라 이주, 길림성 출신
E	여	28	공부 중 (중국적)	방문동거 (1년차)	대졸, 2010년 입국, 부:영주권자/모:국적취득자 구로동 거주, 흑룡강성 출신, 대련에서 공부함
F	남	23	대입준비 (중국적)	방문동거 (3년차)	고졸, 2008년 입국, 부천에 거주, 대림동에서 대입공부 중, 흑룡강성 출신, 모친 결혼이민자
G	여	36	전업주부 (한국적)	결혼이민 (10년차)	고졸, 2001년 이주, 중국에서 꼬치 집 운영, 대림1동에 거주, 길림성 출신, 남편 실직함
H	남	40	요식업 (중국적)	기업투자 (14년차)	대졸, 1997년 이주, 중국에서 교직생활 했음, 흑룡강성 출신, 장애인, 대림3동에서 식당을 운영, 대림2동 거주, 일가친척은 북에 거주
I	남	50	상업 (한국적)	한국인	전문대졸, 흑룡강성 출신 부인과 2005년 결혼, 대림2동 거주, 부인 42세, 대림3동 상업 종사

4. 연구결과 요약 및 분석

1) 면담과정의 전반적인 개요

참여자 모두가 서울의 대림동 인근에서 거주 혹은 활동을 하게 된 때까지의 살아온 인생을 진술하였고 이들은 하나 같이 한국사회에 접하면서 자신들이 처해졌던 지역 및 직능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차별과 멸시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차별을 극복하고자 귀한동포연합총회 소속의 참여자중 일부는 2003년 시위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한국사회로의 정착을 희망하고 있고 그것을 위한 주장 중의 공통적인 특성은 지역사회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고 함께 해주는 화합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합을 희망하지만 그의 가능성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이 관찰되었으며 그 이유는 그러한 역할을 한국정부나 행정기관에서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불확실성과 불신에 있다. 즉, 이들에게는 수단과 방법이 무엇이든 자신들이 직접 쟁취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이념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2) 연구문제 분석

연구문제인 ‘중국동포 집단적 거주지에 나타난 지역사회에 대한 이들의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결과의 요약으로 <표 2>는 세 가지 영역과 각 영역별 하위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표 2> 도출된 영역별 하위주제

연구문제 : 중국동포 집단적 거주지에 나타난 지역사회에 대한 중국동포의 인식변화
세 가지 영역과 각 영역별 하위주제
① 집단화의 이유 : 먹고사는 문제로 인해 모여들, 문화적인 동질성으로 서로를 끌어당김, 점점 더해가는 몰림 현상
② 혼돈과 변화에 대한 인식 : 여전히 차별과 멸시, 중첩된 만큼 지저분한 이중정체성, 발명되어진 소수자집단
③ 소수자집단으로서의 내부적 변화 및 지향방향 : 자괴, 황폐, 한계라는 현실인식, 균열과 봉합으로 꿈틀대는 이합집산, 동포사회가 나아가려 하는 방향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상존하는 배제와 집단적으로 겪는 혼돈과 변화 속에서 이들에게 무엇이 인식되고 있으며, 대림동이라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경험하는 갈등의 장벽과 소수자집단으로서의 내부적인 변화를 이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소화시키며 또 사회적응을 위한 과정에서 이들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모든 영역의 하위주제들 속에 역동적으로 진술되고 있음을 보인다. 모든 참여자의 면담내용을 정제된 해석과 함께 기술하였고 면담내용에 대한 보완설명과

해석은 참여자들과의 개별면담 및 참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동포단체의 행사에 참석하여 지속적으로 나눈 대화와 센터 직원들과의 면담에서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제시된 것이다.

(1) 집단화의 이유

중국동포가 집단거주지를 형성하게 된 것은 1999년 재외동포법이 제정되고, 여기에서 이들이 제외되면서 나타난 보완적 정책의 결과로 인한 것이었다. 처음 한국에 입국한 이들은 서울의 서남지역을 중심으로 이들만의 거주지⁸⁾를 형성해 나갔고 이것이 중국동포들의 집단거주지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이진영, 2010:18). 실질적으로 1992년 한중수교가 되면서 이들의 유입이 급증하였고 이미 2000년대에 들어서며 이들의 주요 집단거주지로 영등포구, 구로구, 광진구가 부각이 되어있다(김용필, 2009).

① 먹고사는 문제로 인해 모여들

서울지하철 7호선과 서해안 고속도로⁹⁾의 완전개통은 서울의 서남지역에 교통의 편리함을 더해주었으며 2003년 11월 구로구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¹⁰⁾은 구로디지털산업단지로의 변모와 함께 서울 서남지역의 주거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촉발했다. 이 재개발사업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인근 대림동으로 이들의 거주지 이동을 유발시켰다. 이는 이들에게 생활비용의 절감을 가져다주었으며 동포들 간의 시장거리가 대림동 지역에서 빈번히 형성되므로 장사를 하며 먹고 살기 위하여 모여들게 된 것이다.

“주로 교통이 좋고 집세가 싸고... 그래서 한들이 모이다 보니 점점 많아졌지요. 2002년도에는 5만 원에서 7만원, 좋은 방도 10만원이면 얻을 수 있었어요. 지금 40만원이고 제일 싼 쪽방이 20만원이에요.”(참여자B)

“독산동에서 하던 장사가 안 되니까 대림동으로 왔어요. 2007년 7월경에 대림동으로 이동했어요. 그래도 여기는 동포들이 많아 그런대로 장사가 잘 되니까...”(참여자H)

② 문화적인 동질성으로 서로를 끌어당김

여수경(2005)은 보편적으로 3F접근방식(Food:음식, Fashion:의상, Festival:축제)은 가장 용이하더라도 타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척도라며 중국동포들의 식생활은 어느 정도 중국에 동화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들의 의상은 우리시대의 유행과는 차별화되며 자타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집단무(集團舞)를 즐기고 우리에게는 낯선 마작을 하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자신들만이 갖는 동일한 생활방식과 놀이문화를 통하여 서로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서로를 끌어당기므로 집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8) 가리봉동에는 과거 구로공단에서 일하던 조선족들이 모여살기 시작했음(한준, 2007).

9) 2000년 8월 1일자로 부분적으로 개통되어 있던 서울지하철 7호선이 완전개통이 되어 2호선과 환승역이 대림동에 설치되고 2001년 12월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됨.

10) 구로구는 2003년 11월 가리봉 일대를 2015년 완공목표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함.

“처음에 왔는데 외국 온 기분이 전혀 안 낫어요. 말이 통하고 음식도 비슷하고..”(참여자E)

“다른 곳에 사는 것 보다 차이가 덜 해요. 음식도 입에 맞고 말도 편하게 통하고 하니까 말예요. ... 밤늦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중략) 동포들은 마작놀이를 즐기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러면 거리가 조용해지고 싸우지도 않고 그래요.”(참여자B)

③ 점점 더해가는 몰림 현상

2010년 12월 현재, 이들은 영등포구 전체인구의 9.6%를 차지하며 주로 대림동을 중심으로 신길, 도림동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¹¹⁾ 외국인을 위한 각종 센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므로 한국어 등을 배우려는 젊은 층을 유인하고¹²⁾ 기존 거주동포들도 이미 형성된 집단적 동포사회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들의 현실 문제를 극복해가며 이러한 요소들이 경제적 이점 및 문화적 동질성과 결합되어 이들의 집중을 점점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 오니까 다문화빌리지센터에서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쳐주고..”(참여자E)

“지금 이사를 생각하는데 벼룩시장을 봐도 대림 쪽을 찾게 돼요.”(참여자G)

“의지할 곳이 없다보니 자꾸 친척 간에 친지간에 친구 간에 몰려드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일은 평택에 가서 해도 잠은 여기서 자고 싶은 거죠.”(참여자D)

“우리가 L.A. 코리아타운을 가면 편안하게 느끼듯, 이들도 모이면 친구들 만나 애환도 달래고 하지요...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일이 없는 사람 욕하는 것이죠.”(참여자H)

(2) 혼돈과 변화에 대한 인식

이들이 사용하던 ‘조선족’이라는 말은 중국의 소수민족들 중 자치구를 형성하여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름대로 자랑스러운 명칭¹⁴⁾이었다(여수경, 2005:262). 그러나 ‘중국동포한마음협회(<http://cafe.daum.net/yitiaoxin>)’ 인터넷 카페에 올라있는 글(자유게시판, 1017번)을 보면 조선족이라는 황당한 명사를 버리고 중국동포라는 호칭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⁵⁾ 이는 이들이 받아들인 차별과 멸시가 주는 정체성 인식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 변화는 정체성 혼돈에 대한 반작용으로 새롭게 소화된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하는 대응기제로 이해를 해야 한다.

11) 2010년 12월 현재, 영등포구 주민등록인구는 407,314명이며 이의 10.9%가 외국인이고 이 외국인의 약 88%가 중국동포임(영등포 다문화빌리지센터 운영현황, 2011.01)

12) 센터 직원과 참여자F의 말을 빌면 한국어말이 서툰 외국인과 중국동포 2, 3세 교육생들이 증가하여 기존시설이 부족해 보조의자를 추가로 배치해도 서서 강의를 듣는다고 함.

13) 중국동포들이 모이면 한국인을 홍보는 것을 의미함.

14) 임채완·김경학(2002)은 500명의 중국연변의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조선족 핏줄에 대한 긍지감’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4%(447명)가 긍지감을 갖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조선족’을 하나로 묶는 가장 큰 특징은 민족의식(340명)이라고 대답하였음.(여수경, 2005:262)

15) 이립빈(중국동포한마음협회 회장), “...연변문화재단에서는 지난 50년의 세월이 낫선 것처럼 다가온 조선족이라는 낫설고 황당한 명사를 버리고 중국동포라는 호칭을 (중략) 같은 민족끼리 자신은 무슨 족이라는 우스운 지칭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① 여전히 차별과 멸시

한국사회에서 조선족이란 의미는 ‘가난한 중국노동자’ 내지 ‘불법 체류하는 중국사람’이라는 일종의 낙인화된(stigmatized) 이름으로 차별과 멸시의 구별화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김명희, 2003:186; 여수경, 2005:261). 이들은 우리와 같은 한민족임에 틀림없지만 이들에 대한 차별과 멸시는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내가 처음 왔을 때보다 50%는 개변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멸시하는 말을 하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중략) 대림동도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멀었지요.”(참여자B)

“국적을 취득한다고 해도 계속 차별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 할 자신이 없는 거지요. 대접을 그리 받으니까..”(참여자H)

이들과 기존주민들과의 사이에는 차별, 멸시 및 차이에 의한 거리감이 상존한다. 지역사회와 동포 사회라는 두 집단 간에 존재하는 상호간격은 연령대가 높은 귀한동포 층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장년위주의 이주노동자 층을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계층에까지 전 세대에 걸쳐 있는 괴리현상이며 세대를 가로지르는 사회갈등의 인자이다.

“70 이상인 분들...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갈등이 더 깊습니다. 자존심도 강하고...(중략) 경로당 낼 때 구청을 가서 기존 주민들이 왜 조선족에게 경로당을 만들어주느냐고 많이 항의를 했지요. 그러나 70-80 넘은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 않아요?”(참여자C)

“생긴 것은 같은데 우리 동포들의 억양이 나오면 내국인들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참여자H)

“애들 한국 언어가 중국어 발음 같아요. 학교선생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뭐가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엄마나라 말도 안 되고 아빠나라 말도 안 되고..”(참여자G)¹⁶⁾

또한, 이들에 대한 기존주민의 노골적 배제 및 부당한 대우는 기존주민이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내보이는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치사하고 아비한 행태의 차별과 멸시라고 보아야 하며, 이처럼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서 세계화와 함께 증폭되고 있는 도시 내의 양극화 및 계급화 현상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김은미, 2007:129).

“병원가도 신랑이 없으면 일처리가 안 되고 순서가 되어도 부르지를 않아요. (중략) 엄마끼리도 결혼이민자의 애들을 안 봐줘요. (중략) 슈퍼에서 물건 살 때 돈을 더 받거나 잔돈을 안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중략) 같은 결혼이민자래도 필리핀보다는 베트남이 아래고 그 다음은 몽고, 그 다음이 우리예요. 같은 핏줄이면 뭐해요?”(참여자G)

“이번 수해 때도 지하셋방에 동포가 피해를 받았는데 침수피해에 대해 주인이 보상을 받았음에도

16) 비록 동포이지만, 장기체제 중인 이주노동자의 자녀인 경우, 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문화적 난민이 될 가능성이 있음.(한건수, 2006:20; 배은주, 2006:73)

실제 피해를 본 동포 세입자에게는 아무 것도 없었거든요.”(참여자B)

그러나 입국 반년이 채 안된 참여자E의 경우에는 차별과 멸시에 대한 경험이 아직은 특별히 없이 한국생활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 보다 3년 정도 먼저 입국한 참여자F나 오래 전에 입국한 다른 참여자에게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차별과 멸시를 주는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매우 불안해한다. 즉, 우리사회는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이들 모든 세대가 불안해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차별과 멸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못 느꼈어요.. 차별을 하면 왜 차별하느냐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어떻게 한국사회에 부드럽게 편입될지 걱정해요.”(참여자E)

“지금은 어리지만, 나중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어른과 주변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참여자F)

“마음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어야 적응이 되지 지금 같이 불안해서야.. 결혼이민자도 2년이 지나야지... 모두가 다 불안합니다.”(참여자D)

② 중첩된 만큼 지저분한 이중 정체성

‘정체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이다. 켈훈(Calhoun, C., 1994; 김명희, 2003:189; 여수경, 2005:262)은 정체성이란 ‘나라는 개체’의 타자에 의한 인식 즉, 타인이 보는 나의 자의식(스스로가 보는 자아)의 상호 밀접한 연관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시도함에 정작 중요한 것은 ‘나라는 개인과 혹은 ‘내가 속한 집단의 가치판단 기준에 의해 비친 이들은 누구인가’하는 자세보다는 ‘이들’은 이들 자신/집단을 어떻게 정의하며, 타 집단에 의하여 어떻게 정의되기를 바라는가를 고려하는 ‘상호 균형적 고찰’의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여수경, 2005:262). 하지만 이들에 대한 차별과 멸시는 상호 균형적 고찰의 자세를 가질 수 없도록 한다. 이들은 한국생활을 통해 한국인도 중국인도 아닌 ‘조선족’으로 혹은 이중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게 되고(한현숙, 1997:68)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존재로서 ‘사이에 낀 불쌍한 존재’임을 확인한다(이민주, 2008:82). 자신들이 유사하다고 그리고 용이하게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는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여수경, 2005:265).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냥 조선족으로 남는 것이 더 편하지요.”(참여자I-처 입장)

“혈통은 한민족인데 국적은 중국입니다.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중략) 국적을 회복했어도 기준주민들은 ‘니네들은 중국놈’이라고 생각합니다.”(참여자A)

“뭐가 뭐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는 풀리빵즈끼리 놀아라. 여기서는 조선족끼리 놀든지 말든지 취급도 안 해주고 우리는 왜 같은 민족으로 태어났을까요?”(참여자G)

“잘 적응을 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내가 한국인인지 조선족인지 모르겠어요. ...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해요.(웃음)”(참여자E)

이들에게 있어서 절실했던 민족심이란 결국 이들이 중국에서 지켜온 정체성인데, 이를 갖고 동시에 고향과 조국에서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은 몇 세대를 거쳐 이중적으로 다시 겪게 되는 가혹한 정체성 위기의 재시련인 것이다.¹⁷⁾ 참여자는 이러한 상황을 '지저분한 것'이라 표현하며 이의 단절과 한국사회가 단절작업을 해주기를 강하게 요구한다. 이 상황은 이중 정체성이 중첩된 것으로 진실로 지저분한 것임을 참여자G의 말을 통하면 확연하게 알 수가 있다.

“고향에 왔지만 60년 넘게 중국에서 살았으니 재적응이라고 봅니다.”(참여자C)

“비관 속에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자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불편함을 대물림할 것인가요? 힘들고 어렵고 지저분한 것은 우리 대에서 끝내야지요.”(참여자H)

“결혼이민자지만 화가 나면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가도 현재 남편과 애들은 두고 가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중국을 같이 가면 지금 내가 여기 와서 당한 설움을 똑 같이 당할 것 아니에요? ... 하지만 자식을 버릴 수도 없고... 선생님! 어찌 해야 해요?”[참여자지는 결국 우울증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림](참여자G)

③ 발명되어진 소수자집단

소수자집단¹⁸⁾이 발명되어지는 데는 다음 네 가지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Dworkin and Dworkin, 1999; 윤인진, 2004; 원숙연, 2008; 박경태, 2008; 설동훈, 2009). 그 네 가지 기준은 식별 가능성, 권력의 열세, 사회적 차별, 그리고 집합적 정체성이다. 이들은 중국에 어느 정도 동화되어 우리와는 구별되는 문화를 갖고 있고 이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가 하면 이미 국적을 회복한 이들조차 우리는 '영원한 조선족'이라는 차별받는 집단의 성원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새롭게 발명된 소수자집단으로서 다음의 대응기제를 갖는 '집단으로서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첫째는 이들은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경제도 문화도 후진국인 데서 한국이라는 선진문민국가에 왔으니까 한국의 사고방식, 선진 국가에 있는 자세를 배우자는 말입니다.”(참여자A)

“불평만 할 것이 아니고 자신을 적응해서 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봐요. 한국법이 있고 동포법이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건전한 생존방법을 얻어내야지요.”(참여자C)

둘째는 지역사회의 경제에 대한 이들의 공헌을 주장하고 이들이 받고 있는 차별과 멸시의 근거가 되는 차이를 부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맞대응을 주장하는 것이다.

17) 허련순의 장편소설 <바람꽃>(1995)의 서문에서 중국조선족의 신세를 “자기의 뿌리를 찾아 헤매지만 고향땅에도 뿌리 내릴 곳 없는 '바람꽃'의 신세”로 묘사함.(오상순, 2006:45)

18)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의 다른 성원들로부터 구분되고 불평등한 처우를 받도록 꼬집어내어진 사람들로서, 자기들이 집합적 차별의 대상임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함.(설동훈, 2009:56)

“한국인이 하기 힘든 일하고 낡고 열악한 지하방도 임대를 하고 하여 지역경제에 공헌을 하고 있다고 동포들은 생각을 합니다.”(참여자A)

“서로 경쟁하며 살아야지요. 동포는 3D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왜 미워하지요? 부모세대야 참고 살았지만 젊은 세대들은 능력에 따라 대해줘야 한다고 봐요.”(참여자E)

“우리를 지지분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사람도 별로 깨끗하지 않으면서... 한국사람들도 쓰레기를 버리면서 우리에게는 쓰레기 버린다고 욕을 해요.”(참여자G)

셋째는 앞과 같은 대처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화의 부단한 시도가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태도에 변화를 준 것은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몽골 출신 결혼이민자가 집권당의 공천(19)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즉 차별과 멸시를 극복하고 한국인은 물론 타 종족과의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자각이 이들 내부에서 형성된 것이다.

“우리 동포에게 관심이 많은 선출직을 뽑자고 얘기를 합니다. ... 우리 중국동포가 대충 4십만명 정도인데 얼마 안 되는 몽골출신에게 공천주어 도의원에 당선이 되었지요. 우리도 뭉쳐서 정계에 진출하는 인물을 배출하자고 한 것입니다.”(참여자A)

“힘 있는 단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구... 신용협동조합이나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사단법인(20)이 그것이지요. 동포들에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복지에도 신경을 쓰고... 올 1년 내에 많은 변화가 올 겁니다.”(참여자H)

(3) 소수자집단으로서의 내부적 변화 및 지향방향

외국인 이주의 증가로 인해, 한국은 더 이상 다문화적 도전(Kymlyca, 1995; Shweder, Minow and Markus, 2002)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아니다. 더욱이 외국인의 이주를 중심으로 한 한국에서의 다문화적 도전은 매우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이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축약되고 있는 듯하다(원숙연, 2008:524). 그러나 중국동포라는 영역으로 와서 볼 때에 이들의 소수자 됨이 단순한 외국인의 이주와 증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고 이 분야에 대한 사회복지학적 접근은 초보적인 단계이다. 원숙연(2008)은 다수자집단과 소수자집단의 차이를 부각하는 논의가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추동력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정책대상으로서 소수자집단 구성원의 동질성을 전제하는 것은 소수자집단 내부의 변이(變異)를 무시함으로써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왜곡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21) 그렇다면 이들의 집단적 거주지에는 어떠한 변이가

19) 몽골출신 결혼이민자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1번 공천을 받아 이주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광역의회 의원에 당선이 되었음.

20) ‘귀한동포연합총회’는 행정안전부에 비영리단체 등록(2008)이 되어 있으며 ‘중국동포한마음협회’는 보건복지부에 2011년 3월 10일 사단법인 허가신청서를 접수함.

21) 예를 들어 여성(집단)이 남성(집단)과 비교해 차별적 경험을 한다고 해도 이성애자인 여성의 경험과 동성애자인 여성의 경험이 동질적일 수 없듯이(원숙연, 2008:525) 일반적인 이주노동자로서의 경험은 민족적 동질성을 갖는 중국동포로서의 이주노동자의 경험과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있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① 자괴, 황폐, 한계라는 현실인식

우선 이들은 조국이라고 찾아 왔지만 같은 민족으로서의 대우보다 외국인 노동자로 대하는 한국사회에 매우 불만족스러워 하며 중국에 있을 때와 한국에 와서 직업은 기능적으로 분절된 상태가 되고 중국에 있을 때 어떠한 기능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국에 와서는 단순육체노동자로 전락되어(이진영·박우, 2009:110) 사회적으로 하층구조인 3D라는 허드렛일을 한다는 자괴감에 빠져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는 중국에서의 경력, 자격증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굶은일을 할 수 뿐이 없어요. 나도 고등학교 교감까지 했는데 정말...”(참여자C)

“법무부, 출입국과 같이 경기 북부의 3D 업종을 돌아 봤는데 공장에 가보면 문화도 없고 시설도 열악하고 학습도 없고... 그런데 공장장에게 말합니다. 동포라고 일만 시키지 말고 투자를 해서 좀 학습을 시켜 깨우쳐주라고 개변시키라고 말을 합니다. 환경이 열악하니 정말 너무합니다.”(참여자D)

이들은 아직 코리아 드림이란 희망을 갖고 있고 중국으로 돌아 갈 의도가 없음과 돌아 갈 수 없음을 인식²²⁾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생활의 나태화 그에 의한 룸펜(Lumpen)화 및 윤리도덕적인 타락의 가능성²³⁾이 경제적인 열악함과 맞물려 가정해체현상이 확산되면서(곽승지, 2010) 이들 삶의 질은 더욱 황폐해지고 있다.

“동포들은 한국 온지 3년이면 나태해져요.”(참여자B)

“남자들은 중국에 가봐야 별로 할 일도 없고 (중략) 하루에 술 먹고 밥 먹고 2만원이면 되는데 현장을 나가면 6만원 받으니까 중국보다는 나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아 희망도 없이 버티는 거지요. 하지만 여자는 달라요. 돈을 모으지요.”(참여자D)

“왕래를 못하니 중국 내에 있는 가정과의 파탄이 일어나지요. 중국 내 조선족 사회의 커다란 문제입니다. 가정이 깨지는데 돈을 벌면 뭐합니까? [깊은 한숨] 그리고 열악한 생활개선 문제가 심각하지요. 지하 셋방의 환경이 나쁜 것이...”(참여자C)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는 차이가 만드는 지역사회의 반응에 스스로의 한계를 절감하며 민감하게 응답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 국가에서 굳어진 경제적 관념의 갈등, 오래 격리된 상태로 지내온 시간이 주는 감정의 장벽, 빨갱이 집단으로 매도되는 매카시즘(McCarthyism)적인 낙인, 이중적인 한국인의 태도²⁴⁾에 의한 선입관, 자체적 생활개혁 운동의 부진, 그리고 나름대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될 것임.

22) 참여자E는 한국사회가 받아주지 않으면 돌아갈 수뿐이 없다고 하지만 부모가 한국에 정착했으므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난해하고, 참여자G는 화가 나면 돌아가고 싶다고 하지만 돌아갈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참여자들은 돌아가기를 원치 않음.

23) 이주 중국동포 여성의 '정숙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감시와 통제(이해웅, 2005)

24)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에서 차별받는 경우에 분개하면서도 한국사회에 들어온 유색 외

의식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단기체류자로 인한 구태의 악순환²⁵⁾에 대한 해결책을 절실히 구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관념 때문에 쟁취를 해서 먹어야 하는 관점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내국인들이 동포에게 뭐 한다고 퍼주느냐는 말을 하지요.”(참여자H)

“감정의 장벽! 수십 년간 형성된 무형의 힘이 참으로 파괴적이고...(중략) 우리 동포를 빨갱이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감정을 상하게 만들지요.”(참여자C)

“개선 캠페인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해도 무슨 돈으로 찍겠어요 ... 행정기관에 얘기를 하면 꾸지람만 듣고... 동포지만 주정뱅이는 우리도 꼴 보기 싫은데요. 뭐...점점 집단화는 돼 가는데 정부지원은 아예 없고 자체 노력도 한계가 있고...”(참여자H)

② 균열과 통합으로 꿈틀대는 이합집산

동포사회도 내부적으로 많은 인식변화가 감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첫째, 동포 개개인의 경쟁과 갈등을 포함한 변화를 말하며, 둘째, 무엇보다도 집단화 되면서 생성되는 여러 단위조직과 이러한 단위조직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표출되는 회원들의 의견과 주장으로 인하여 동포사회 내부에도 균열이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이와 동시에 균열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같은 핏줄을 타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나 사할린동포 보다 못한 푸대접을 한국정부로부터 받고 있음을 매우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면서 동포 스스로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포사회가 단결을 위하여 균열과 통합으로 꿈틀대며 이합집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동포끼리 더 문제지요. 이주한지 오래된 사람과 최근에 새로 온 사람들과, 한국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언쟁이 생기고 서로 목소리가 커지고 싸움이 나서 칼부림이 나지요. 누구나 상대방의 가슴에 있는 찧사랑²⁶⁾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요. (중략) 단체는 많은데 계획성이 없고 일처리가 감정적으로 흐르는 것이지요. 서로 간의 갈등의 원인은 주도권 싸움입니다.”(참여자H)

“권력이지. 제 이름을 내려고... (중략) 돈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동포를 통합하려고 한마음에 들어가 활동한 거예요. 총회와 한마음협회가 합쳤으면 좋았을 텐데 통합이 되기 힘듭니다.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안 되는데...”(참여자B)

“갈등이 있습니다. (중략)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 많은 단체 간에 사전 회합이 없었고 단체장들이 주기적으로 동포들의 이슈를 갖고 핵심을 걸러서 리더십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해야 한다

국인들을 차별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음(송중호, 2005:51; 함정현·황창주·소광섭, 2008:425), 유럽계 백인에게는 호의적이고 유색인종은 차별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선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사대주의적 경향이 있다는 것임(김혜순, 2007:19).

25) 단기체류로 인하여 한국사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단기체류자들의 지속되는 유출입은 체류자로 하여금 생활개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함을 의미함.

26) '참여자H'는 이념이든 경험이든 사람이 처음 접하면서 뇌리에 각인되어 쉽게 바꿀 수 없는 인식은 서로 존중하지는 의미에서 '찧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면담 내내 이를 강조함.

고 봅니다.”(참여자A)

“우리는 한국사람도 아니고 중국사람도 아니구요. 탈북자는 집도 주고, 사할린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 손으로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예가 많아요. 교회에 가면 (약한 자에게) 맨 날 베 풀어라, 베풀어라 하는데... 동포는 약자예요. 항상 두려운 거고 경계를 하지요. 그런 약자를 보호할 준비가 (한국사회는 물론이고 동포사회 스스로에도) 안 되어 있는 거지요.”(참여자H)

③ 동포사회가 나아가려 하는 방향

내부적으로 인식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동포라는 소수자집단과 지역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한국사회라는 지배집단 사이에서 이들의 현 시점에서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동포사회의 지향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단기간에 압축성장을 해왔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문화정책의 체계가 중앙정부의 주도보다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주체가 되고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그 이유는 다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지역별, 대상별, 유형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동아일보, 2011.02.08). 따라서 외국 이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생활현장에서 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영등포구와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현실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영등포신문, 2011.02.09). 더구나 결혼이민자의 한국유입과 이들의 정착을 기정사실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시사적인 용어인 다문화(전영평, 2008:501)라는 개념으로는 이들의 현실적인 욕구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고 다문화라고 하면서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를 간과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오경석, 2007:13; 김혜순, 2007:15). 이들은 자신의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같은 핏줄을 타고난 민족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참여자의 주장대로 이들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에 의해 감정적으로 복잡하여 기존주민들과 정서적으로나 생활상으로도 격리양상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²⁷⁾

“큰 동포집단이 왔는데 다문화에 넣고 동포를 처리하면 문제가 됩니다.”(참여자C)

“뉴스에서만 다문화, 다문화, 동포, 동포 말로만 하지 말고...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다문화라고 시작은 거창한데 끝이 없어요, 마무리가 없는 거지요.”(참여자G)

“저는 동포사회에 대고 말합니다. ... 한국에 와서 달랑 민족이라는 이유로 많은 것을 요구할 수만은 없으니 한국적 현실을 공부하라고... 민족적 현실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화향년(還鄉女) 이야기도 하지요. 한국인의 정서에는 중국을 싫어하는 것이 흐른다고 말합니다. 외침을 받으며 수천 년을 살아왔는데... 중국에서 온 너희들에게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한국사람들이 생각하겠냐고 반문합니다.”(참여자H)

참여자들은 하나 같이 사회통합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이들의 주장을 무시한다. 특히 이에 대한

27) 조선족마을인 연변거리가 언어소통에 문제가 심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과 격리양상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김은미, 2007:132)고 지적하나, 격리의 원인이 동포사회의 배타인지 지역사회의 배척인지는 검증할 필요가 있음.

참여자의 요구는 절규에 가깝도록 절박하고 현실적이다.²⁸⁾ 중국동포라는 이름으로 집단화되어있는 이들에게는 현행 법률과 행정체계만으로 동포 내부적인 체류신분 사이 및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사이의 연결고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어요. ‘다문화가 꽃피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포단체들이 같이 운영진을 구성하는데 처음에만 불러다가 구성을 해놓고 다음부터는 참여를 못했어요. 정보도 부족하고... 불러주지를 않아요.”(참여자H)

“화합이 돼야 합니다. 최종 목표이구요. 서로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략) 우리도 노력을 할 테니 기존주민들도 같이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참여자A)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지만 ‘결혼 이민자’를 제외한 이들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다문화정책의 대상자는 아닌 것이며(임형백, 2009:601), 귀화하거나 귀한(歸韓)하여 국적을 소지한 중국동포들은 더욱 그 대상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소수자집단으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들의 궁극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서 이들의 지향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수자 또는 소수자가 처한 상황을 분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널리 통용되는 유형론은 소수자집단들의 궁극적 목적을 기준으로 첫째는 다원주의적(pluralistic) 소수자이고, 둘째는 동화적(assimilationist) 소수자이며, 셋째는 분리주의적(secessionist) 소수자이고, 넷째는 투쟁적(militant) 소수자이다²⁹⁾(Wirth, 1945:354; 설동훈, 2009:59). 이들은 원인에 관계없이 고립을 피하고 지역사회에서 격리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즉 자발적으로 지배집단에 흡수되고자 하는 ‘동화적 소수자’로 자리매김 되기를 희망하며 ‘인정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에 몰두하는 것이다.³⁰⁾ 이들은 상호이해를 통하여 한국사회에 인정받고 귀속되고 싶어 함을 알 수가 있다.

“10여년 넘게 했지만 언제나 혼자 우리끼리 했어요. 한국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찾아오는 경우도 없고... (중략) 주인이 먼저 좀 베풀어주면 좋겠지요.”(참여자D)

“동포들과 내국인들 사이에 동사무소 같은 행정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합니다. (중략) 서로를 이어주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있으면 좋겠어요.”(참여자H)

28) 화합의 가능성을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참여자는 “예, 필연적으로 화합이 되어야 합니다. 비판적 속에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자식들 때문이에요. 이러한 불편함을 대물림 할 것인가요? 힘들고 어렵고 지저분한 것은 우리 대에서 끝내야지요. 미래를 위하여...”라고 대답함.

29) ‘다원주의적 소수자’는 지배집단과 소수자 집단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원하며 ‘동화적 소수자’는 언어·방언·의복·생활패턴 등의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지배집단에 흡수되기를 원하고 ‘분리주의적 소수자’는 완전한 정치적 자결과 독립을 원하며 ‘투쟁적 소수자’는 현재의 지위를 완전히 뒤바꾸려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함.(설동훈, 2009:59-60)

30) 모든 사회는 각 사회에 고유한 인정(認定, recognition) 질서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질서는 한 사회의 집단적 정체성에 기초를 제공하고 한사회의 사람들은 공유된 인정 질서에 따라 ‘우리(us)’와 ‘그들(them)’ 또는 ‘타자(others)’를 구별하며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그 것을 실현하는 반면 소수자는 자신들의 존재를 주류사회로부터 인정받으려 투쟁을 함.(Taylor, 1995:225-256; 설동훈, 2009:58)

“별 기대되는 바는 없지만 중간 가교역할이 없어서 그렇지요. (중략) 인위적이든 강제적이든 그런 가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역민과 이주민들 간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적다고 봐야지요.”(참여자)

소수자운동은 필연적으로 소수자정책 혹은 행정을 요구한다. 그런데 소수자운동은 소수자가 집단화할 수 있을 때나 소수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집단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전영평, 2008:505).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시키는 일, 법률로 정해진 일’을 처리하는데 열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부류의 소수자들은 집단적 소수자운동을 통해-스스로 혹은 옹호집단을 통해-지속적으로 자신의 정체성 확립과 인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치적 투쟁을 해왔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가는 소수자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치가 결정하면 행정은 집행’하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학습한 소수자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정책을 획득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정치적 활동을 하게 된다(전영평, 2008:500).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이미 집단화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소수자로서의 특징을 유형화³¹⁾ 하면 ‘경제적 소수자’인 동시에 ‘권력적 소수자’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신체특징은 한국인과 차이가 없으며 문화적으로도 한민족의 문화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권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빈곤의 타파’와 ‘정치권력의 쟁취’를 선택했고 그의 수단으로서 자신들을 위한 옹호집단의 확보³²⁾ 및 정계로의 직접적인 입문³³⁾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동포문제를 목사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동포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참여자A)

참여자 : “동포들이 처음에는 먹을 것 때문에 모였지요. 이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는데 그 이유가 종교였지요. ... 다시 흩어졌다가 또 다시 모였는데 그 이유가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흩어집니다. 지금은 흩어진 상태인데 다시 모이게 하는 수단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연구자 : “글쎄요. 요즘의 움직임으로 보아 정치권への 진입이 아닐까요?”

참여자 : “맞아요. 바로 정치입니다. 동포사회는 지금 진정한 리더를 고대합니다.”

“정치권 진입에 찬성합니다. 입장을 대변해주는 창구가 되니까... 인정을 못 받아서 이런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주류 측에 서야 된다고 봅니다.”(참여자H)

31) 차별적 대우와 인권의 침해에 노출되는 이유가 신체특징의 차이일 경우는 신체적 소수자, 열악한 권력적 지위일 경우는 권력적 소수자, 경제적 빈곤일 경우는 경제적 소수자,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경우는 문화적 소수자임. (전영평, 2007, 2008:513)

32) 중국동포사회에 유리한 정당이나 특정후보를 지지하므로 행정권역에 의사소통의 채널을 확보하려는 정치적인 행위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공격적으로 표출됨.

33)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자유선진당 영등포구 비례대표 출마자인 장혜정은 정치참여 동기를 “동포에 대한 법률·사회적 처우 등이 열악함”, “너무도 요원한 정부의 관심과 기대”, “스스로 정계에 진출하여, 권리와 지위확보 및 향상”에 두고 있다고 밝힘.(www.midri.kr)

5. 결과 요약 및 결론

전반적인 연구결과는 ‘중국동포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이들이 어떠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현실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들의 지향방향을 이해하는데 주력했다. 2000년대에 들어 영등포구 대림동은 이들의 집단거주지로 부각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교통 및 경제·문화적인 것이며 이들의 집중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의 현실생활에는 차별과 멸시가 여전히 존재하고 기존주민들과의 사이에 거리감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거리감은 세대를 가로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기존주민의 배제와 부당한 대우는 계급화를 만들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을 불안하게 느끼고 있고 중첩된 이중 정체성으로 고통 받는 현실 위에 있다.

이들은 이미 우리사회의 소수자집단으로 자리매김을 완료했으며 집단으로서의 변화를 시작했다. 그 변화는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적극적 대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의 주장과 맞대응, 뒤따르는 조직화의 부단한 시도, 한국사람 및 타 종족과의 경쟁을 해야 한다는 자각이 형성되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외국인의 증가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사실의 왜곡이 우려된다. 즉, 이는 이들 소수자집단에서 내부적인 변이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 변이는 첫째 3D라는 하층구조로 계급화가 되었다는 동포사회의 현실인식이며, 둘째 내부적인 균열과 불합이 반복되는 과도기적 이합집산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셋째 탈북자나 사할린 동포는 고사하고 타종족보다 못한 푸대접을 받는다는 불공평함에 대한 자각이며, 넷째 지역사회 내에서 이들의 좌표를 상층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시동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사이에 연결고리의 부재로 한국사회의 관심영역 외곽에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의 지향방향을 살펴본다면 이들은 지배집단인 지역사회에 흡수되는 동화적 소수자로 인정받아 지배집단에 귀속되기 위해 인정투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가 결정하면 행정은 집행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학습하였기에 소수자집단으로서의 권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소수자운동으로 정치권력의 쟁취 및 옹호집단의 확보를 도모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위 연구결과에 의거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포사회와 지역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감은 이들의 자녀세대로까지 전달되는 괴리현상으로 미래에 사회갈등³⁴⁾의 소지가 될 것이므로 이의 해소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정책상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행정당국은 이들이 체류자격상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불안해하는 현실을 개선시켜주어야 한다.

셋째, 상호간의 연결고리 부재로 이들이 받는 생활상의 멸시와 외곽지대에 방치되는 상황을 극복하

34)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고, 이들이 차별의식을 갖고 성장한다면 이들은 우리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점점 이방인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치러야 할 미래의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될 것이다.”(권해수, 2009)

기 위하여 우리사회는 양측 간의 연결고리 체결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이들은 소수자집단으로서 이미 부각이 되어 동화를 위한 인정투쟁을 하면서 권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권력 혹은 권력의 옹호집단을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사회는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 지원해야한다.

다섯째, 400,000명을 웃도는 이들을 굳이 매카시즘적인 테두리 안에 포함시켜 이질적인 집단으로 계도(ghetto)화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성숙함이 요구된다.

이상으로 우리에게 머지않아 도래할 다문화·다인종 시대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사회복지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의 파편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정책개입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중국동포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³⁵⁾이며 이들은 나름대로의 집단화를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을 근거로 하여 볼 때 2020년에는 2010년 대비 외국인의 수가 2.2배 증가³⁶⁾하는 것으로 종족별, 직능별로 현재보다 많고 다변화된 거주지가 출현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이든 물리적이든 이들의 집단화를 막거나 방지할 수 없으므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 시점에서만 보아도 대림동 인근에서 이들의 집단적인 생활을 방지하기에는 집단이 과도하게 커져 있으며 이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개연성이 충분하다. 특히, 이들은 법적인 신분이야 어떻든 이미 우리사회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으며 같은 핏줄을 타고난 한민족인 동시에 외국인으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므로 이들을 포용하고 통합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적인 정책개입이 치밀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동포사회와 지역사회 사이에 상호연결 기능의 부재로 당면해 있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다민족·다문화 현상에 대한 한국사회의 적응(김혜순, 2006:4)이라는 관점에서 이들을 우리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구성원도 함께 교육을 하는 상호접근이 필요하다. 즉, 이질적인 문화와의 조우로 갈등하는 중국동포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이 갖추어진 동포단체를 선정, 사회복지기금과 사회복지사들을 투입하여 양측 간의 '연결고리'를 체결하여 서로 소통하는 환경 속에서 이들이 처한 경제 및 정치적 소수자의 길을 극복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적인 시도는 동포사회를 위한 지도자 육성을 유도하는 것이어야 하고 미래의 국가적 자산으로 만들어야 할 단기체류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이들을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받아드릴 수 있는 상호계몽적인 질서를 구축하고 전파(傳播)시키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인식변화의 조사대상을 중국동포로 한정하였기에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기존주민의 동포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한 연구가 후속된다면 한중수교 20년이 되는 2012년을 기점으로 한국사회가 동포사회와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책과 생활을 다각도로 변혁시키기 위한 총체적 방안마련에 밑바탕이 될 것이다.

35) 한국의 외국인·이민자와 그 자녀수가 2020년에 2,711,866명으로 총인구의 5.5%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함.(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아, 2009)

36) 2010년 현재 외국인 비율은 2.5%임(법무부 보도자료, 2011.01)

참고문헌

- 강학순 역. 1994. 해석학의 이해, Hufnagel, Erwin. 1994. 서울:서광사.
- 곽승지. 2010. “재한 중국 동포의 성취와 발전 과제”,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 미드리 No.4: 18-23.
- 권혜수. 2009.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다문화사회”, 『SAPA News & Platform』 2호__통권13호: 2-3.
- 김명희. 2003. “한국 내 조선족의 정체성과 한국관”, 『계간사상』 183~201.
- 김미옥. 2008. “중도장애인의 레질리언스(Resilience)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제60권 제2호: 99-129.
- 김용필. 2009. “국제관계 맥락에서 재외동포 - 조선족 이해하기”, 인하대학교 국제정치학과 특강 (2009.10.06).
- 김은미. 2007.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3장, 다인종·다민족화의 공간적·계급적 분석’,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용역과제 07-7, 『한국사회학회』 111-139.
- 김은미·김지현. 2006. 서울 속의 세계 알리기 프로젝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이선. 2007. “다민족·다문화 사회를 향한 길 위에선 한국사회를 진단한다.”, 『젠더리뷰』, 5: 112-114.
- 김혜순. 2006.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최종보고서”, 동북아시아대위원회 학술용역 06-8, 서론, 『한국사회학회』 1-12.
- 김혜순. 2007.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서론,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모색,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용역과제 07-7, 『한국사회학회』 1-34.
- 동서문화. 1999. 파스칼 대백과사전.
- 동아일보. 2008. “중앙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 2월 8일.
- 문민. 2010. “재한 중국동포단체 현황과 과제”,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 미드리 No.4: 72-89.
- 박경태. 2008.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 배은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복지실태와 주요쟁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7권 4호: 49-85.
- 법무부. 2010. 통계자료(2010.12).
- 법무부. 2011. 보도자료(2011.01).
- 사)국경없는마을 다문화사회교육원. 2007. “이주민 공동체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조사연구: 다문화 지도 제작”, 문화관광부 학술연구용역사업.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서울시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건립방안.
- 설동훈. 2009.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새로운 ‘소수자집단’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 『사림』 제34호, 『특집』 역사 속의 소수자들: 53-77.
- 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아. 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정책연구용역사업.
- 송중호. 2005.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모색”, 『민족연구』 23: 81-103.
- 양옥경. 2007. 다문화가족지역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엄한진. 2006. “전지구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 이민논의: 동북아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용역과제 06-8 『한국사회학회』 45-75.

- 여수경. 2005. “한국체류 조선족의 갈등과 적응”, 『인문연구』 제48호: 243-276.
- 영등포구청. 2010. “국적회복 및 국적취득 중국동포 현황”(2010.05).
- 영등포구청. 2011. “영등포 다문화빌리지센터 운영현황”(2011.01).
- 영등포신문. 2011. “중국동포 새해맞이 축제 한마당”. 2월 9일.
- 오경석. 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 다문화 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사)국경없는마을 학술토론회 자료집』 2-15.
- 오상순. 2006. “이중 정체성의 갈등과 문학적 형상화: 조선족 문학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현대문학의 연구』 37-69.
- 원숙연. 2008.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523-549.
- 유용식·손호중. 2009. “다문화 사회 대응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Vol. 36, No. 2: 447-470.
- 유정숙·김가득. 2010. “노인의 지속적 자원봉사활동 경험 :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제62권 제3호: 247-270.
- 윤인진. 2004. “탈북자의 사회적 실태와 지원방안”, 최협 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401-424.
- 이민주. 2008. “재중동포의 상업 활동과 정체성 형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화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 이진영. 2010.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동포』, 서울: 재외동포재단.
- 이진영·박우. 2009. “재한 중국조선족 노동자집단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14권 제2호 통권51집: 99-119.
- 이혜웅. 2005. “중국 조선족 기혼 여성의 한국 이주경험을 통해 본 주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 임채완·김경학. 2002. “중국연변조선족의 민족정체성 조사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10집: 247-273.
- 임형백. 2009.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특징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층적 접근”,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Vol.2009 No.1: 593-609.
- 전영평. 2007. “소수자의 정체성, 유형, 그리고 소수자정책 연구 관점”, 『정부학연구』, 13(2): 107-131.
- 전영평. 2008.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운동과 소수자행정” 『한국행정학보』 Vol.42 No.3: 499-520.
- 정혜숙. 2006.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매 맞는 여성의 생존(survival)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제58권 제4호: 237-263.
- 최옥채. 2008. 『사회복지사를 위한 질적연구』, 서울: 신정사.
- 최영민·이기영·최현미·김정진. 2009.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 학지사.
- 한건수.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생활과 적응”,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아동연구소 편, I-20 학술대회 자료집.
- 한건수. 2010.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과 인류학”, 『인문정책포럼』 여름: 46-49.
- 한성미. 2010. “소수자 집단의 장소성 형성에 대한 문화 심리학적 분석: 탑골·종묘공원과 연변거리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학위논문.
- 한준. 2007. “다문화 공생질서 세우자”, 『시사저널』 911호.
- 한현숙. 1997. “한국체류 조선족 노동자의 문화 갈등 및 대응”,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 함정현·황창주·소광섭. 2008. “한국의 다문화사회 형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동방학』 제15집: 423-451.

- Calhoun, C. 1994. *Social Theor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Oxford: Blackwells.
- Cwerner, Saulo B. 2001. "The Times of Migratio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7(1): 7-36.
- Dworkin, A. and Dworkin, R. 1999. *The Minority Report : An Introduction to Racial, Ethnic, and Gender Relations*,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Fong, Eric and Rima Wilkes. 2000. "A New Vertical Mosaic in Canada." *Conference Paper of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Conference*, Los Angeles, CA, U.S.A.
- Good, Kristin. 2005. "Patterns of Politics in Canada's Immigrant-receiving Cities and Suburbs." *Policy Studies* 26(3-4): 261-289.
- Kymlyca, W.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 Lie, John. 2004. *Multiethnic in Japan*. Harvard University Press.
- Logan, John, Richard D. Alba and Wenquan Zhang. 2002. "Immigrant Enclaves and Ethnic Communitie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 299-322.
- Myles, John and Feng, Hou. 2003. "Changing Colours: Assimilation and New Racial Minority Immigrants."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29(1): 29-58.
- Shweder, R. A., Minow, M. and Markus, H.. 2002. *Engaging Cultural Differences : The multicultural Challenge in Liberal Democracies*. NY: Russel Sage Foundation.
- Tarumoto, Hideki. 2003. "Multiculturalism in Japan: Citizenship Policy for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n Multicultural Societies* 5(1): 88-103.
- Taylor, Charles. 1995.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hilosophical Argument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225-256.
- White, Michael, Ann H. Kim and Jennifer E. Glick. 2005. "Mapping Social Distance: Ethnic Residential Segregation in a Multiethnic Metro." *Sociology Methods and Research* 34(2): 173-203.
- Wirth, Louis. 1945. *"The Problem of Minority Groups"* *The science of Man in the world Crisis*, edited by Ralph Lint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Wood, Patricia K. and Liette, Gilbert. 2005. "Multiculturalism in Canada: Accidental Discourse, Alternative Vision, Urban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9(3): 679-691.

A Study on Variation of Chinese-Korean's Recognition to the Local Community in their Enclave

Kim, Young-Ro
(University of Seoul)

This study used the qualitative research for deeply interviewing Chinese-Koreans who live and work in Dearim-dong area, Yeongdeungpo-gu, Seoul, collectively. The variation of recognition to the local community at the migration early and the present and their response for overcoming their pending issues are studied through this. To understand the reality and conflict they encounter, the effort for overcoming the pending issues, the inner change of their own community, their fixed direction and so on becomes the core variables for integrating them to our society. They have formed the enormous cluster and have been already developed as the minority group. They are doing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for being recognized from the dominant group and trying to approach the politics for overcoming the inferiority of power. Accordingly, the intervention of social welfare to this minority group should be a more active working to protect the fragmentation of our society which can be resulted from the increasing influx of the foreigners and be also an approach to mutual enlightenment for making our society adapt to the phenomena of multi-nations and multi-cultures and for accepting them as the population.

Key words: Chinese-Korean, Minority, Struggle for Recognition, Inferiority of Power, Fragmentation of Society, Mutual Enlightenment

[논문 접수일 : 11. 04. 02, 심사일 : 11. 04. 19, 게재 확정일 : 11. 06. 07]